

보도 일시	2022. 8. 16.(화) 09:00	배포 일시	2022. 8. 16.(화) 09:00
담당 부서	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	책임자	과장 김혜주 (044-203-2550)
		담당자	사무관 김남영 (044-203-2549)

한국 방문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35명, 우리 옷 한복 입는다

- 문체부와 국가보훈처,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한복체험 행사 개최 -

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우리 옷, 한복을 입어보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8월 16일(화) 오후 3시 30분,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다.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가 국가보훈처(처장 박민식, 이하 보훈처)와 함께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행사에는 보훈처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해 초청한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35명이 참여한다.

양 부처는 지난해 전통문화 홍보와 국제보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, ‘유엔군 참전의 날’ 행사 시 방한한 유엔 참전 용사에게 한복을 선물해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바 있다.

그리고 이번에는 선조의 독립운동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. 후손들은 한복을 입고 훈민정음 등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전시를 관람할 예정이다. 행사 협력기관인 한국 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(원장 김태훈) 한복진흥센터는 전통한복을 엄선하고, 후손들에게 고름 매는 법을 가르쳐 주는 등, 후손들이 한복을 바르게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지난 12일(금)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오는 18일(목)까지 국립현충원 참배, 광복절 경축식 참석, 한국문화 체험, 독립운동사적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.

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“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조국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.”라며, “해외에서 한복을 직접 입을 기회가 없었던 후손들이 이번 행사로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특히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높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